

유가 마칩내 100달러...글로벌경제 요동치나

물가·금리인상 직결... 정부 경제운용 부담

증시 조정 불가피... 석유·유화학계 대비상

3일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은 연평균 7% 성장률과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건 새 정부의 경제운영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정부 경제운용 '빨간불' =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의 물가와 금리 인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고유가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한편,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 악화로 연결돼 기업의 투자위축과 내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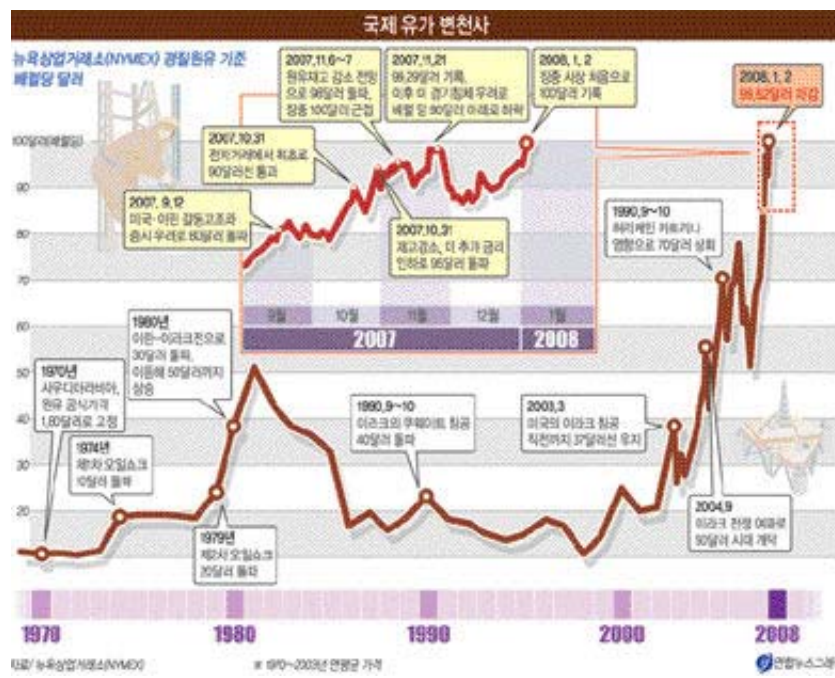
더구나 이미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전년동기보다 3% 상승한 데 이어 12월에는 3.6%까지 치솟았다. 또 지

난해 12월 무역수지가 57개월 만에 적자로 반전되면서 고유가로 인한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증시 단기조정 불가피' = 국내 증시에서도 고유가에 대한 불안 심리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국내 증시의 수급 악화를 들어 '유가 100달러' 시대가 증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의 수급 악화는 증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키우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증시가 여러 약제를 무시하고 오직 위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고유가, 원화강세, 미국 경기둔화 등의 약제가 한꺼번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 말했다. 석유업종은 유가가 오르면 제조원가가 상승하지만 제품 가격은 올리기 어려워 유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석유업종은 생산시설 가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데다 중·소규모 업체가 많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 크다.

항공업계는 유가 100달러가 지속될 경우 운임 인상이나 비수익노선 폐지까지 검토해야하는 처지다. 유화업계도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부문을 판매 가격에 곧바로 반영할 수 없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위기상황은 아니다' = 정부는 현재의 고유가 추세가 '배럴당 100달러'라는 명목상의 상징성은 크지만, 경제운영의 기본계획을 바꿀 만큼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의 폭이 눈에 보이는 것 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고, 다른 거시경제 변수에도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또 유가상승 속도에 국내의 경제 체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충격의 정도는 과거 오일쇼크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임종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국제 유가는 2006년 말에 비해 45~48% 정도가 올랐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부동산발 금융부실 경고

삼성연,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 지적

올해도 국내 주택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시중의 돈 '가뭄'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등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올해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올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지속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도 미분양 속출로 인한 주택경기 위축과 금리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돼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연구소는 올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성장 우선'으로 바뀌에 따라 출자총액제나 인수합병(M&A) 제도, 금산분리 등 기업의 투자여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또 올해 국내 주요 트렌드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금융산업 '빅뱅' ▲방송·통신 및 유·무선통신의 융합 ▲시장·산업 영역과에 따른 초경쟁의 시대 도래 ▲가정과 사회의 다문화·글로벌화 ▲교육정책의 기초 변화 등을 꼽았다.

이밖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 서·남·동 해안을 잇는 U자형 국토개발 등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삼성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한국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새 정부는 성장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세와 규제철폐를 통한 자율과 경쟁원리를 꼽아야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올 한국 GDP 1조 달러 넘을 듯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민간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9천700억달러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최근 4년간

의 저성장 국면속에서도 연평균 850억 달러 가량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식거래 급감

12월 4억3천만주 거래... 전달보다 13% 줄어

광주·전남지역의 지난해 12월 주식거래가 전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12월 광주·전남의 주식거래량은 4억3천500만주로, 전달의 5억200만주에 비해 13.4% 줄었다. 거래대금도 2조7천500억원으로 전달(4조2천300억원)보다 34.9%나 감소했다.

이같은 수치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전국 평균 감소율(10.5%)보다 2.9%포인트가, 거래대금은 전국 평균 감소율(32.8%)보다 2.1%포인트가 각각 더 높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주식거래가 감소한 것은 고유가와 시중금리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주식거래 실적 상위 5종목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서울증권, STX, 랜오션, 일선석재, SK증권, 광명전기 순이고, 코스닥시장은 신천개발, 이화전기, 미주레일, 코엔텍 등이었다.

한편 2007년 한해 지역 전체 주식거래량은 4월 7억5천800만주가 최고였고 12월 4억3천500만주가 최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SUV '모하비' 새해 첫선

기아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MOHAVE)'가 3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열린 신차발표회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시판 가격은 2륜구동 3천280만~4천160만원, 4륜구동 3천490만~4천400만원이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고품격 SUV '모하비' 시판

광주지역 오늘 신차 발표회

기아차는 3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 '모하비'(MOHAVE) 출시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신차 발표회는 4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렸다.

모하비는 29개월 동안 2천300억원이 투입돼 개발됐으며 휠베이스(축간 거리)는 동급 최장인 2천895mm로, 3열 시트를 접으면 1천220ℓ의 적재공간이 생긴다. 모하비에 탑재된 최첨단 V6 3.0 디젤엔진은 최고출력 250마력, 최대토크 55.0kg·m에 연비는 2륜구동 11.1km/ℓ, 4륜구동은 10.8km/ℓ(자동차연비 기준)다.

기아차는 오는 13일 개막하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 모하비를 해외 무대에 처음 선보이고, 올 여름부터 북미·중국 등 전세계에 수출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올해 내수 1만8천대, 수출 3만대 등 4만8천대를 판매하고 내년에는 내수 2만대, 수출 6만대 등 총 8만대로 모하비 판매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모하비 가격은 2륜구동 모델이 3천280만~4천160만원, 4륜구동 모델은 3천490만~4천400만원(이상 자동차연비 기준)이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금감위, 인수위 보고

국내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허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과 일본·영국 등에서는 이미 영업 중이다.

이 은행은 점포 설립비용이나 인건비 등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자본금 등 설립요건이 현행 은행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중부세 과세기준 9억으로 완화

강남권 30% 혜택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전체 가구수의 12%가 중부세 과세 기준을 벗어난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30%가 기준에서 빠지는 반면 강북권은 대상이 거의 없어 세제 혜택이 강남 등 부촌(富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108만8천317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중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중부세 대상이 25만4천167가구에서 12만3천371가구로 줄어든다. 이는 중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비율이 23.36%에서 11.34%로 12%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중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 책정됐다고 가정하고, 매매 상한가 7억5천만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와 11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 아파트의 가구수를 산출한 것이다.

또 세대수에 합산 과세할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를 전제로 유주택 것으로 실제 국제세의 중부세 과세 대상자 숫자와는 다르다.

이 가운데 강남권 3개구 중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35.71%(2만3천70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가 24.94%(2만7천875가구), 송파구가 26.15%(2만651가구) 등으로 나란히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용산구(25.96%, 6천145가구), 강동구(20.06%, 1만777가구) 등도 수혜 비중이 높다.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금천구, 은평구 등 3개구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가 거의 없어 과세 기준 상한에 따른 수혜 단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올 공기업 취업문 더 좁다

2,370명 채용... 작년보다 22% 줄어

올해 공기업 취업이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공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계획을 설문한 결과 응답기업의 67.3%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6.1%, '미정'인 기업은 26.5%였다.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힌 공기업의 채용규모는 2천370명으로, 지난해보다 22.2%나 줄어든 수치다. 이는 새 정부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년 연장도 공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공기업이 신규채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인크루트는 분석했다.

기업별로 기업은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450여명을 3월과 9월 두번에 걸쳐 채용하며, 한국산업은행도 작년과 비슷한 80여명을 11월에 모집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100여명을 7월에 뽑으며,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80여명의 채용을 3월과 9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0여명을, 한국마사회는 1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기업·공기업 선호 여전

구직자 설문... 근무 환경·직무 만족도 고려

구직자들은 올해 취업시장을 어렵게 전망하는 가운데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온라인 채용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신입구직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새해 취업 전망 및 계획'을 설문한 결과 70.8%가 올해 취업난이 지난해 비해 '훨씬'(37.2%) 또는 '조금 심각할 것'(33.6%)이라고 답했다.

구직자들은 올해 취업을 선호하는 기업 종류로 절반 남짓이 대기업(30.0%)과 공기업(25.2%)을 꼽았다. 다른 이들은 중견기업(21.0%), 외국계 기업(13.1%), 중소기업(10.6%) 등을 선호했다.

희망 업종은 IT·정보통신(24.8%), 금융(17.6%), 전기·전자(16.0%), 서비스(15.2%), 자동차·항공(7.8%) 등의 순이었다. 직종은 광고·홍보(15.0%), 기획(14.7%), 마케팅(14.6%), IT·정보통신(12.1%) 등이 구직자들의 선호를 받았다. 구직자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직무 만족도(33.6%)였다. 이어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27.9%), 기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20.1%), 연봉 수준(9.7%)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다해전력	경리사무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08	062-361-2247
초원문고	참고서 판매/도서주문 및 관리와 회계 담당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09	062-574-7007
㈜후영	인포메이션 정규직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9	062-236-1983
대림IT&S(주)광주지점	수출입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및 무역업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10	062-952-9020
㈜송학토건	건축 시공 담당 정규직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10	062-710-2000
㈜국제컴퓨터아카데미	컴퓨터 학원 상담 및 고객관리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1/10	062-223-6123
기산헬스	헬스 트레이너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11	062-361-2248
신진정밀(주)	생산관리/구매관리(신입)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1	062-954-0951
미카스아이(주)	(호남지사)기술영업 및 기술지원 신입/경력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2	02-545-4333
㈜한산기공	공작기계/산업기계설계,기계조립,가공(선반/밀링),경리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12	062-956-7022
진원	정규직 사원 모집 프로그래머 및 현장 기능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15	018-620-3825
미니보이	상품관리 및 택배포장업무 담당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62-655-6865
㈜다우스틸	일본 Seller 관리 및 Operator(해외영업)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1/16	061-725-5522
㈜태창컴퓨터	CNC선반, 머시닝센터, 프레스나 경역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1/16	062-956-241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